

A conceptual image showing a hand holding a paintbrush, painting the Earth from space. The Earth is partially covered in green and blue, while the rest is dark. The background is a deep blue space filled with stars.

아시아의 미래와 정책 방향

2012년 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INDEX



1. 아시아의 역동성과 다양성



2. 아시아의 미래 트렌드



3. 정책방향





01 아시아의 역동성과 다양성

- ① Global Leading Power로 부상하는 아시아
- ② 떠오르는 경제대륙, 아시아
- ③ 다양한 인구 구조를 가진 아시아

아시아의 역동성과 다양성

1. 아시아의 역동성과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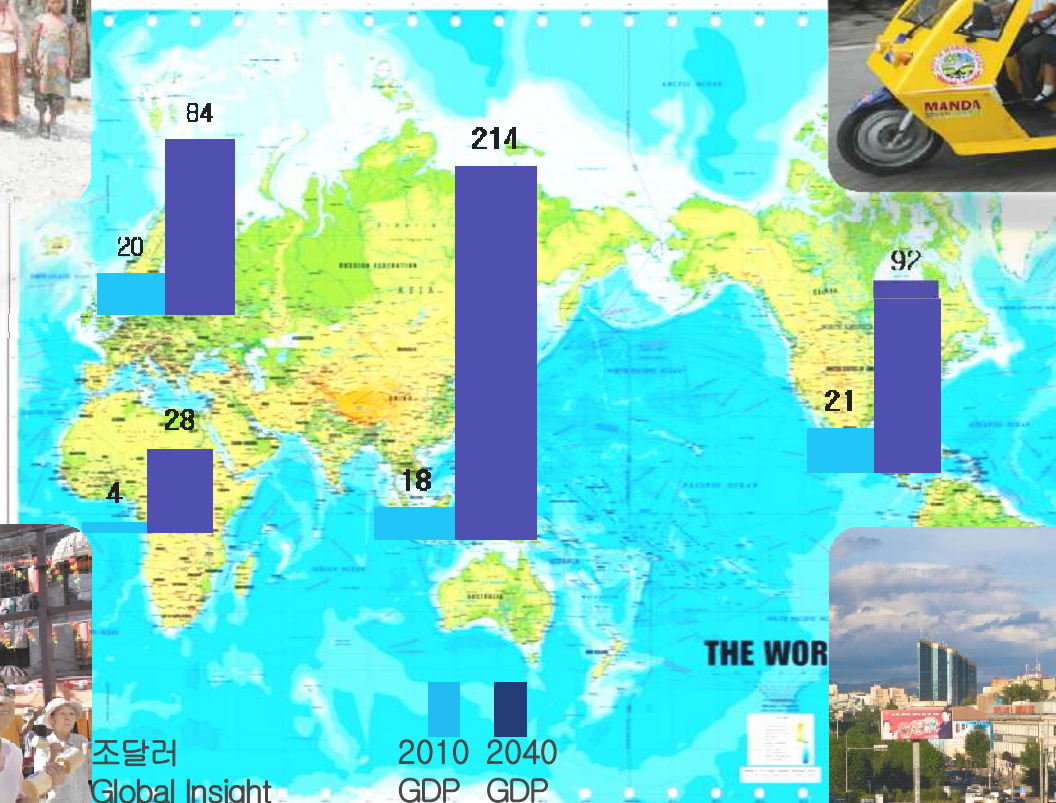
네팔의 여성 소득증진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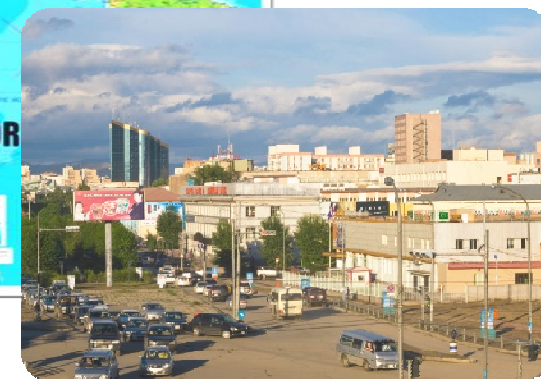
필리핀의 삼륜 전기자동차 시범 프로젝트



일본의 고령화 사회



자료: ADB(www.adb.org), sanseverything.wordpress.com



도시화 진행중인 울란바토르

① Global Leading Power로 부상하는 아시아

2040년 중국, 인도, 일본이 아시아 GDP의 83%, 세계 GDP의 35% 차지

(중국) 2020년대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부상(Goldman Sachs), 미국과 함께 G2로 세계경제 선도

※ IMF는 2016년(구매력 평가기준), 이코노미스트지는 2018년(시장환율기준)으로 전망

(인도) 2030년대 일본을 넘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일본 경단련 2012)

※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 2011년 64%(8억명) → 2020년 67%(11억명)

※ 2040년에는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도 제기(Jacques Attali 2011)

(일본) 현재 세계 3위의 경제대국, 2040년까지 계속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 유지

(Jacques Attali 2011, 일본 경단련 2012)

※ 2050년 일본은 경제규모 6위국으로 전락(일본 경단련, 2012)

중국, 인도, 일본간 세력 균형

일본은 중국-견제, 인도-유대 강화를 통해 아시아 세력 균형 추구

중국, 인도, 일본간 주도권 경쟁이 격화될 경우 아시아의 리더십 위기 발생 가능성

② 떠오르는 경제대륙, 아시아

2040년 전세계 GDP의 50% 이상 점유

- ✓ 아시아의 세계 GDP 비중은 2010년 29% → 2040년 51%
- ✓ 아메리카와 유럽/CIS는 같은 기간 비중이 33%→22%, 32%→20%로 감소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2~3위 경제대국까지 다양하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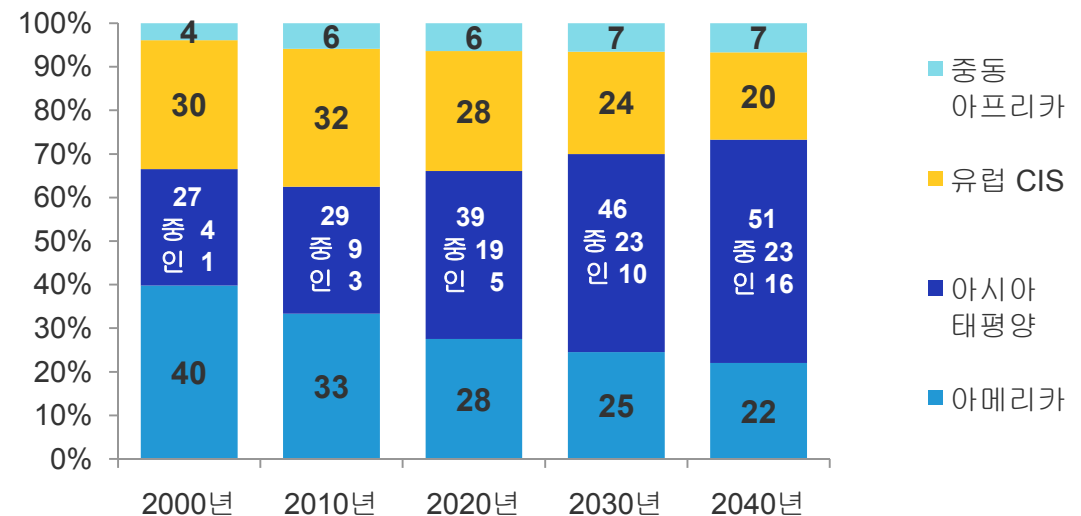
- ✓ 1인당 국민소득 1천달러 미만 국가(미얀마, 네팔)부터 4만달러 넘는 국가(일본)까지 공존

1인당 GDP 전망(USD)

국가	2011년	2040년	증가율(%)
일본	45,870	99,919	118
한국	22,430	93,372	316
중국	5,220	71,126	1,263
인도네시아	3,430	31,758	826
인도	1,630	41,908	2,471
베트남	1,230	16,656	1,254
미얀마	821	3,488	325
네팔	640	5,780	803

자료: Global Insight

세계 GDP 비중의 대륙별 변화 전망



③ 다양한 인구구조를 가진 아시아

2050년 전세계 인구의 60%를 차지

- ✓ 2010년 세계 70억명 인구 중 37억명 거주(52%) → 2050년 93억명 중 56억명 거주(60%)
- ✓ 지속적인 인구성장을 통해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UN 인구보고서, '11.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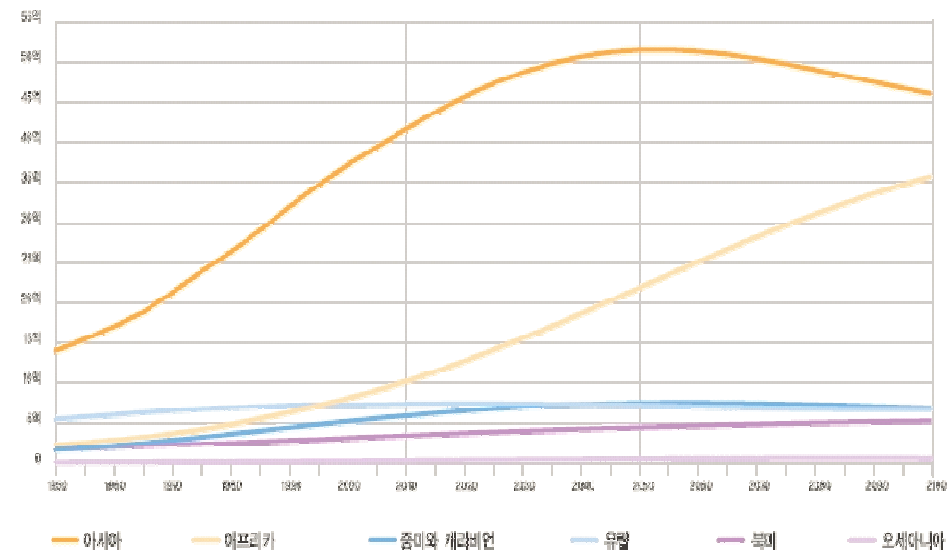
고령국가(한중일)와 젊은 국가(인도 · 파키스탄)가 함께 공존

지역별 아시아 인구구조의 다양성

구분	국가	인구감소 시점
Speed 1: 고령 아시아 국가	일본	2005년
	한국	2024년
	중국	2032년
Speed 2: 젊은 아시아 국가	태국	2039년
	인도네시아	2050년 후
	베트남	2050년 후
	인도	2050년 후
Speed 3: 매우 젊은 아시아 국가	파키스탄	2050년 후
	아프가니스탄	2050년 후

자료: ADB, 2011.

대륙별 인구 전망





02 아시아의 미래 트렌드

- ① One Asia 가속화
- ② 아시아 신흥지역의 중산층 확대
- ③ 인구구조의 다양화
- ④ 자원 수요 급증

① One Asia 가속화 : 경제 통합 심화

✓ 아시아권 FTA가 활발하게 체결되어 경제통합을 가속화

2012년 아시아에서 발효 중인 100개의 FTA 중 53개가 아시아 국가간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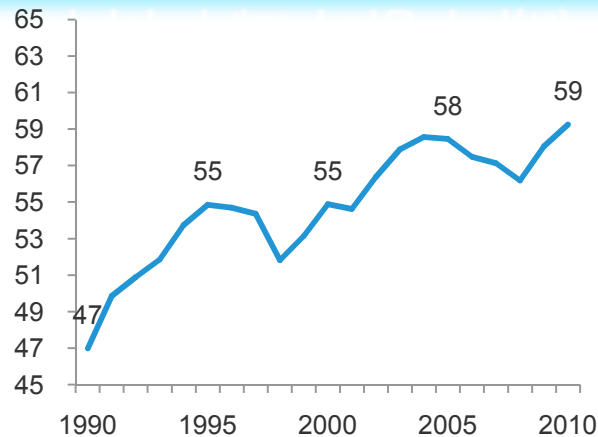
✓ 아시아권 경제 관계가 심화되면서 역내 교역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역내교역비중: 1990년 47%→ 2000년 50%→2010년 59%

✓ 아시아 내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화

중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동남아시아의 생산거점화, 남아시아의 제조업 역량 강화

아시아 역내교역 비중 추이(%)



자료: ADB Regional Integration Center

아시아 역내 통합 추진 계획

지 역	추진 계획	세계교역비중*	
		2010	2040
동북아	• 한중일 FTA 추진 가속화	18.5%	22.0%
아세안	• 2015년 ASEAN경제공동체 (AEC) 출범	6.7%	8.9%
남아시아	• 2016년 남아시아 관세동맹 (SACU) 출범	1.6%	11.2%
동북아 + 아세안 + 남아시아		26.9%	42.1%

주 : * 수출 기준

자료: 글로벌인사이트, 2012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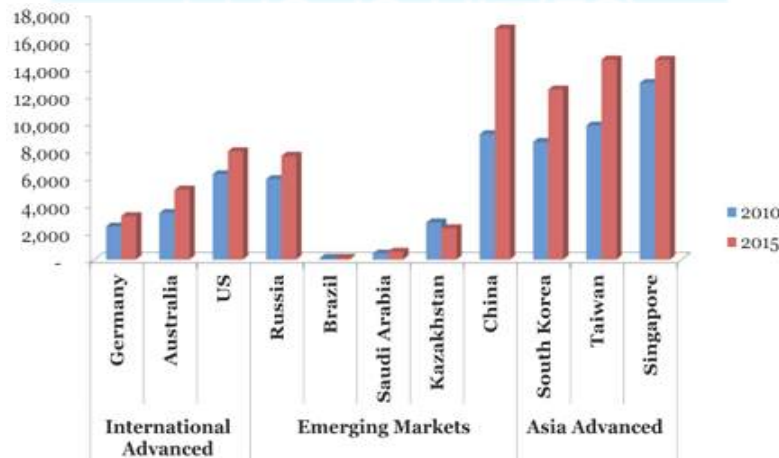
[기회요인] :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 형성, 아시아 내륙 물류망 확대로 물류 효율성 증대

[위협요인] : 아시아 국가간 경기의 동조화, 한·중·일 경제 주도권 경쟁 심화

① One Asia 가속화 : 인력, 사회, 문화 교류 확대

- ✓ 아시아행 여행객이 크게 증가: 2015년 중국의 관광객은 2010년의 2배로 증가
국내 아시아 관광객 비중은 2011년 80%이고 이중 한류관광객이 4% 수준(문화관광연구원)
- ✓ 아시아 콘텐츠 시장은 2011~2015년 연평균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국콘텐츠 연구원)

아시아행 여행자 규모(천명)



지역별 콘텐츠시장 규모(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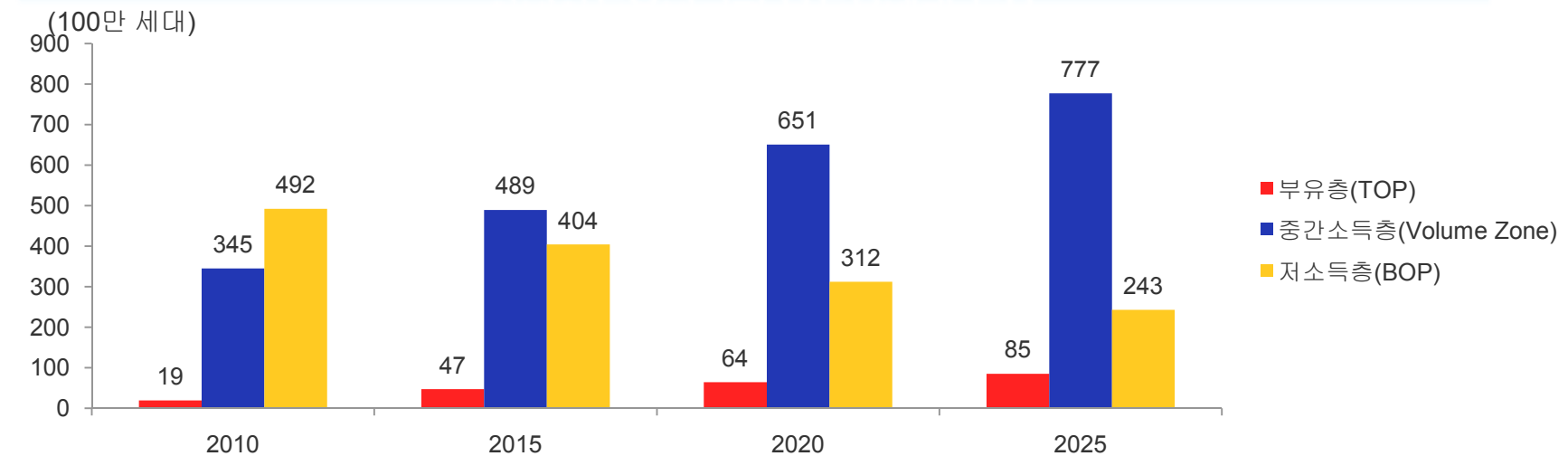
[기회요인] : 문화, 관광 산업의 성장 기회 확대, 문화 다양성 확대

[위협요인] : 문화 정체성 상실, 문화 주도권 경쟁 격화

② 아시아 신흥지역의 중산층 확대

- ✓ 아시아 신흥지역은 경제성장과 함께 중간소득층(연간 세대 가처분 소득 5천~4만달러)이 급증
- ✓ 아시아 신흥지역의 중간소득층 비율 증가 : 40.3%(2010년) → 70.3%(2025년)
아시아 중간 소득층 중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3국의 중간소득층이 70%이상 차지

아시아신흥지역의 중산층세대 전망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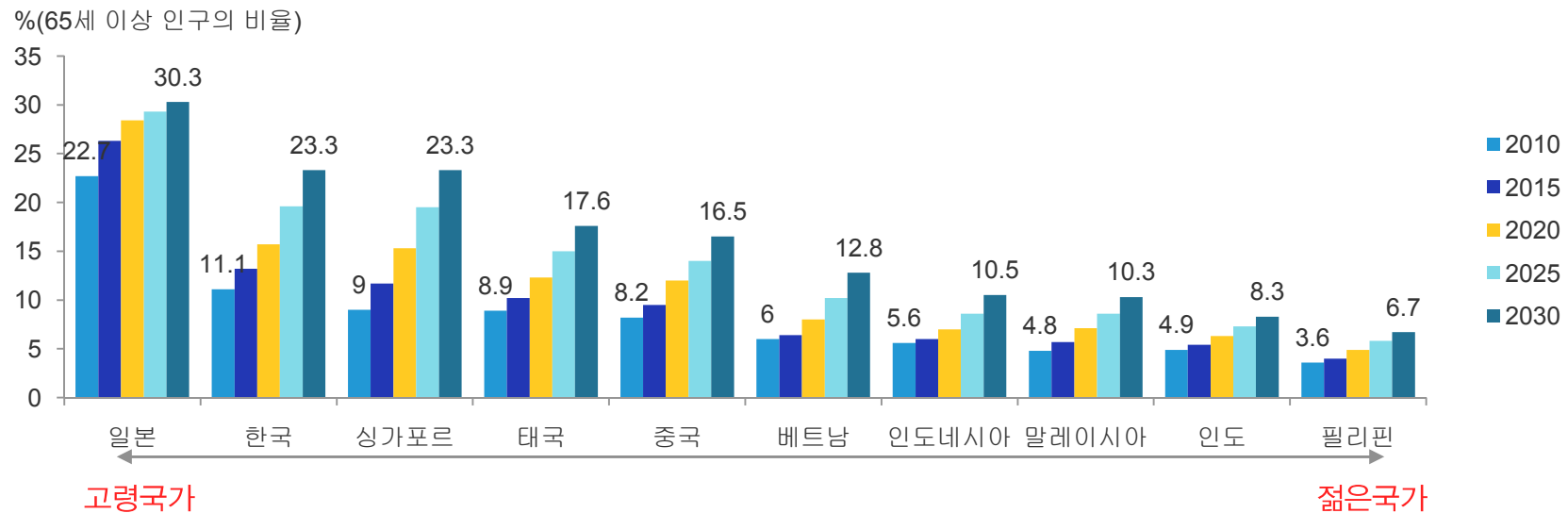
[기회요인] :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과 인프라 투자 시장 형성

[위협요인] : 신흥 중산층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심화

③ 인구구조의 다양화

- ✓ **젊은 국가** :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저개발국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여 인구가 꾸준히 증가
2030년 인구가 1억을 넘는 국가는 인도(15.2억), 중국(13.9억), 인도네시아(2.8억), 필리핀(1.3억), 베트남(1억)
- ✓ **고령 국가** : 일본, 한국, 중국, 태국 등 아시아권내 경제 선도국은 출산율 저하 등으로 고령화 심화

아시아 국가들의 고령화 전망



[기회요인] : 풍부한 노동력으로 고성장 지속, 실버산업 등 신산업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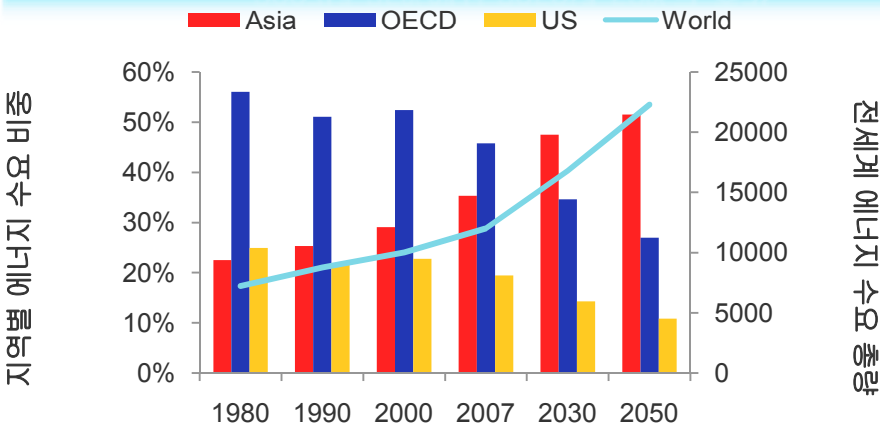
* 2040년 생산가능인구 : 아시아(33.4억명), 아프리카(11.5), 아메리카(4.8), 유럽(4.4)

[위협요인] : 국가간 인력이동 확대로 사회갈등 심화,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 증가

④ 자원 수요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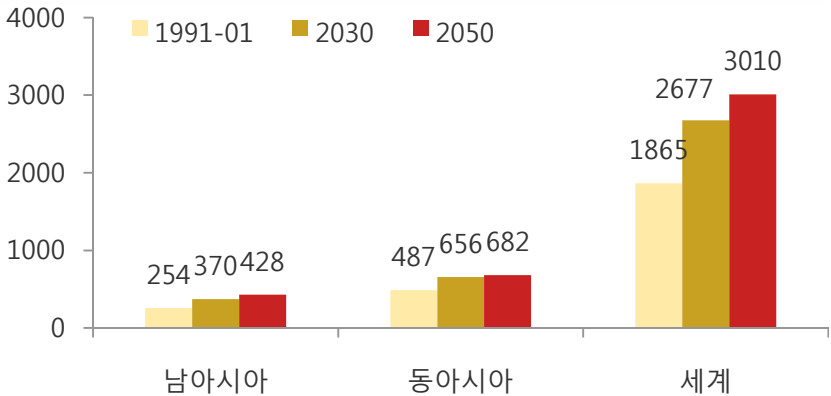
- ✓ 아시아 에너지 수요는 2050년까지 현재 수준의 3배 가까이 급증하여 세계수요를 견인
수요량: ('07) 4,242 → ('50) 11,480 Mtoe,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07) 35 → ('50) 52%
- ✓ 인구증가와 소득수준 상승으로 아시아 역내 곡물소비량은 크게 증가
2030년 10.2 → 2040년 11.1억톤, 2030년 중국이 세계 곡물의 2/3, 육류의 4/5를 소비
- ✓ 아시아 역내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사막화로 물 부족 현상이 중국, 인도에서 서남아시아까지 확대될 전망

전세계에서 아시아의 에너지 수요 비중이
2007년 35%에서 2050년 52%로 증가



자료: ADB(2011)

세계 곡물 소비 전망(백만톤)



[기회요인] :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 성장, 녹색기술 개발 촉진

[위기요인] : 자원 확보경쟁 격화, 아시아 자원수급의 역외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가중



03 정책방향

- ① 아시아 국가들과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확대
- ② 에너지 자원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
- ③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확대

미래 아시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 역내 국가간 FTA를 통한 신흥시장 선점
 - ✓ 중국의 G2 부상과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대한 실리적 대응 전략 수립
 - 중국, 인도, ASEAN 간 균형자적 역할 강화
 - ✓ 중진국 함정 등 아시아 리스크에 대한 공조체제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ASEAN+3, EAS 등 협력을 지속하고 CMIM, ABMI 등 금융협조체제 강화
 - ✓ 지정학적 리스크 방지 노력을 통한 실리 확보
 - 한중일러 협력 강화, 영토분쟁 완화를 위한 정치, 외교적 노력 강화
-

① 아시아 국가들과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확대

✓ 아시아를 인재 확보의 거점으로 활용

- 전문 외국인력, 유학생 등 우수인재 유치와 미숙련 노동력 도입시스템 정비
- 외국인력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예 : 외국인력 등 차별금지법 제정)

✓ 아시아 국가들과 문화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 교류 확대

- 다문화 방송국 설립 단계적 추진, 문화 다양성 교육확대 등 문화 다양성 아카이브 구축

✓ 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물적 인프라 구축 노력 강화

- 20~30년을 내다보는 공항, 항만 확충 계획·수립 등
-

② 에너지 자원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 자원 안보 강화

-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자원 보급선 확충과 동북아 가스· 전력 네트워크 구축
- 에너지 효율 개선, Smart Grid 등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원 다변화
-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 추진

✓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선제적 대응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정착
 - 소량 분산 배출원의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
 -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설립 가능성에 능동적 대응
-

③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확대

- ✓ One Asia 가속화에 대응한 산업 전략 추진
 - 중국내륙,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 신흥 제조 기지를 적극 활용
 - 역내 문화· 인적 교류 확대와 콘텐츠 시장 성장 문화 콘텐츠· 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
 - 미개척 신흥 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현지화 전략 강화
 - ✓ 고령화 된 선진 아시아와 젊은 아시아에 대한 맞춤형 진출 확대
 - Silver Product & Young Product의 두 트랙 마켓 전략
 - 의료, 복지 등 고령화 관련 기술 개발, 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 ✓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역내 경쟁력 우위 확보
 - 유통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결합된 복합 진출 추진
-

A conceptual image showing a hand holding a paintbrush, painting the Earth in space. The Earth is depicted with green landmasses and blue oceans, set against a dark, star-filled background. The hand is positioned on the right side of the frame, with the brush tip touching the edge of the planet. The overall scene conveys a sense of care and stewardship for the planet.

THANK YOU